

# 광주 FC 주말 홈 개막전... 축제 시작됐다



서울 원정길에서 승리를 기록한 광주 FC가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난적'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2019시즌 홈개막전을 치른다. 사진은 서울이랜드와의 1라운드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펠리페(왼쪽)가 공을 다루고 있는 모습. (광주 FC 제공)

10일 아산 무궁화와 K리그2 2R... '대표팀 한술밥' 감독 지략대결 관심 펠리페 맹활약·신인 엄원상·이희균 스피드 합격점... 홈경기 기대 만발 걸그룹 EXID 축하공연·사인공 선물... 비눗방울 체험 등 가족행사도

프로축구 광주 FC가 안방에서 2019시즌 축제를 시작한다. 광주는 오는 10일 오후 1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019 2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폐막 이후 120일 만에 홈팬들 앞에 다시 서는 광주는 승리의 기세를 이어 홈개막전을 축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앞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번 경기는 연승을 놓고 벌이는 두 팀의 대결이다. 서울을 제압한 광주, 아산은 적지에서 전남 드래곤즈를 3-0으로 누르면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두 팀 모두 어려운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분위기를 땀다. 대표팀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두 사령탑의 지략 대결도 관심사다. 광주 박진섭 감독과 아산 박동혁 감독은 선수 시절 함께 대표팀 생활을 했던 잘 아는 적이다. 두 감독은 지난 시즌에는 1승 2무 2패를 주고

받으면서 우위를 가리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령탑들의 치열한 지략싸움이 이번 대결의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광주의 최근 분위기와 전력은 좋다. 기대했던 신인 공격수 엄원상과 이희균이 서울이랜드전에서 빠른 스피드를 과시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장신 외국인 공격수 펠리페는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이번 경기에서 빠른 발을 가진 김정환까지 힘을 보탠다면 광주의 연승 가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원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아산에는 대표팀급 듀오인 주세종과 이명주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던 여름, 최준혁, 박정수 라인이 아산과 중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야만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홈 개막전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이 팬들을 기다린다. 먼저 인기 5인조 걸그룹 EXID가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흥을 돋운다. EXID는 하프타임 때 팬들과 만나고, 응원 인터뷰와 개막 축하 공연을 펼친다. 관중에게 친밀 사인 유니폼과 축구공도 선물한다. 다양한 장외행사와 선물도 준비됐다. 남문 매표소 앞 광장(롯데마트 입구)에서 무중력·우주기 인간 퍼포먼스와 대형 비눗방울체험마당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단위 행사가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웨스팅하우스 에어프라이어, LG코드제로A9 물걸레기 등 다양한 경품도 주어진다. 원정길에서 승리를 거두고 온 광주가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2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루카쿠가 쏘아 올린 맨유 '기적의 8강'

멀티골로 생제르맹에 3-1 대역전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맨유)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을 상대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에서 믿을 수 없는 역전극으로 8강에 진출했다. 맨유는 7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3-1로 승리했다. 지난달 13일 안방에서 열린 1차전을 0-2로 내줘 탈락 위기에 몰렸던 맨유는 원정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골을 포함해 3골을 몰아치며 두 경기 합계 3-3 균형을 맞췄고,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 8강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건 2013-2014 시즌 이후 5년 만이다. 맨유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로멜루 루카쿠(사진)가 먼저 한 골을 터뜨리며 희망을 불렀지만 PSG가 전반 12분 베르나르의 골로 분위기를 추월했다. 맨유는 전반 30분 마커스 래슈퍼드의 중거리 슈트를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이 막아냈지만, 튀어나온 공을 루카쿠가 득점포로 연결하며 다시 합계 점수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후반 45분 맨유 디오고 달로트의 오른발 슈트 PSG 프리스케 김베페를 맞고 벗어났는데, 비디오판독(VAR)이 선언했다. VAR 결과 공은 김베페의 팔꿈치 쪽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맨유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부폰과 맞선 래슈퍼드가 오른발로 강하게 찬 페널티킥이 들어가면서 맨유는 추가시간 4분에 8강으로 가는 골을 기록했다. 2차전 전·후반 90분이 지나도록 3-3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아 연장전이 진행된 포르투(포르투갈)와 AS로마(이탈리아)의 경기에서도 VAR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포르투는 안방 2차전에서 후반 45분까지 2-1로 승리, 두 경기 합계 3-3으로 균형을 맞춰 연장으로 끌고 간 뒤 연장 후반 페널티킥 골로 역전승을 일궈냈다. 연장 후반 로마의 알렉산드로 플로렌치가 상대 페르난도를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VAR에 이은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알렉스 테에스가 연장 후반 12분 이를 골로 연결했다. /연합뉴스

## 우즈 "박성현, 세계 1위 축하해"

SNS에 글 남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한 박성현(26)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우즈는 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놀라게 해서 즐거웠다"며 "세계 1위에 다시 오른 것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우즈가 박성현을 놀라게 했다는 말은 지난달 테일러메이드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났던 때를 의미한다. 우즈의 팬으로도 잘 알려진 박성현은 당시 우즈와 함께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우즈는 이 메시지와 함께 광고 촬영에 앞서 박성현과 처음 만나는 동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우즈와 박성현이 처음 만나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다.



우즈

박성현

박성현은 3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 4월 자 세계 랭킹에서 1위에 복귀했다. 박성현은 우승 후 기자회견에서 "만일 우즈가 이 인터뷰를 본다면 우즈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아 우승할 수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손흥민, 골 침묵 이번엔 깰까

10일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 원정... 토트넘 최근 3경기 무승

4경기 연속 득점포 침묵에 빠진 손흥민(27·토트넘)이 '유럽 통산 100호 골' 추억을 품은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골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10일 0시(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사우샘프턴과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최근 4경기째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까지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으나 이후 4경기는 득점이 없었다. 6월엔 도르트문트와 다시 만나 골을 노렸지만, 이번엔 '천적'의 위용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이번 시즌 16골(리그 11골)에 머물러 있다. 사우샘프턴이 여전히 리그 하위권(17위)을 맴도는 데다 이미 수비를 돌파해본 경험이 있는 상대

인 만큼 손흥민으로서 득점을 추가할 좋은 기회다. 최근 리그에서 3경기 무승(1무 2패)에 빠진 팀 입장에서 공격적인 폭발은 중요하다. 토트넘이 주축하는 사이 1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71)와 2위 리버풀(승점 70)은 멀어졌다. 오히려 토트넘은 뒤를 더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 대행 체제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4위(승점 58)까지 쏠아왔다. 한편 독일 무대에서 지난 라운드 분데스리가 선두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멀티 골을 폭발하며 상승세를 탄 지동원(28·아우구스부르크)이 9일 밤 리그 3위 라이프치히와의 원정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프랑스 리그양에선 10일 오전 4시 관정훈(25·디종)과 석현준(28·스타드 랭스)의 '코리아 데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